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구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다운 사랑

주관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5 충현교회

THE WEEKLY CH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주께 감사하라

추수감사 주일 및
가족연합 예배 (2·3부)

영아
유아
유치부는
자체 예배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2부와 3부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 예배 때는 특별 찬양의 시간도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일 년 동안 사고 없이 건강하게 지낸 것을 감사합니까? 자녀들이 공부 잘한 것을 감사하고 사업이 형통한 것을 감사합니까? 그것도 물론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내가 아프고, 모든 일들이 막혀 있으면 감사하지 않아도 됩니까?

사실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없는 죄인입니다(롬 1:21).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으로 감사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었습니까? 단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푸신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나오기 원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드리는 유일한 감사의 제목은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의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감사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은총 앞에 죄인 된 자신의 죽음(고전 15:30)을 날마다 주님께 드리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이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살후 2:13).

깨어, 이 말씀을 들으라! (금요집회)

신앙인의 자격과 체험

하나님께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신다.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보신다(엡 1:4-5).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성은 아직도 우리를 안에 꼭 차 있다. "그러므로 내가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롬 7:21).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그리하여 죄의 법 아래로 우리가 감싸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바울은 로마서 7:24-25에서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정반대되는 두 모습을 말해 주고 있다. 신앙인의 자격과 체험에는 그 모습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십자가 상에서 일어난 신비는 우리의 이해를 훨씬 넘어선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죄인들이 그를 죽였다. 그는 세상 죄를 진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이었다. 하나님께 드러졌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십자가의 깊은 역사를 받아들이며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 이 연합은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또 그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말한다(갈 2:20; 사 53:12). 즉,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죽음과 장례를 함께 하며 부활의 모든 과정에 동참함으로써 존귀한 자의 본질을 얻게 된다. 따라서 지금 신자들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사시는 그 삶과의 연합이다(요 17:20-21, 23).

하나님께서서 그 하나님의 기준을 낮출 수가 없다. 인간은 연약하고 모두 나쁘기 때문에 적당히 인간에게 맞추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꾸실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기준은 변함없이 완전·완벽하시다. 주님도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셨다(마 5:48). 이 길과 자격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으며 또한 명령하신다(롬 3:20-22). 놀라운 은총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어느 누구도 그 모습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롬 3:26).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만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우시고 거룩하심을 타협하지 않으시며 죄인들을 의롭다 인정하실 수 있는 길이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랄 만한 특권들을 보여주고 있다(엡 3:6). 신자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복스러운 지위와 위치에 대한 진리가 있다.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으며 죄의 사슬로부터 구속함을 받았다고(갈 5:1; 엡 1:7).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후 5:18). 또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과오를 용서하신다(요일 1:9). 하나님의 가족의 한 사람으로 양자를 삼아 주신다(갈 4:5-6). 베드로 역시 믿는 자들의 자격을 언급한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나..."(벧전 2:9).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히 4:16). 하나님의 강한 사랑의 대상이며 돌보심을 받는 위치에 놓여 있다(롬 8:38-39).

하나님의 자녀로의 축복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의 대가로나 선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자격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이므로 어떠한 발전이 있는 것도 아니다. 감정적으로 체험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는 자의 위치는 영원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의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지 않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 주시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도 체험할 수도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의 눈앞에서 완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완전하지 못하다.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완전하게 순결해질 수가 없다(요일 1:8). 여기에서 말하는 죄성은 죄를 지었다든가 또 많은 사람들을 죄라고 말하는 그 죄와는 구별된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부인한다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밖에는 안 된다(요일 1:10). 믿는 자들이 죄를 범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죄를 범하고도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행할 때에 문제를 더 심각하게 믿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범죄한 그 사실을 그대로 고백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임을 알기 때문이다(요일 2:1).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새로운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 안에 옛 죄성이 있다(엡 4:22,24). 이제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생긴 선택권이 있다. 이 새로운 의지를 행함으로써 성령을 따라 새로운 피조물의 길을 택할 수도 없고, 또 육을 따라 옛 사람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롬 8:9). 수제기를 거처서 지내온 수많은 경건한 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면 질수록 타락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된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게 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옛 사람과 새 사람이 끊임없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을 고백한다(롬 7:15). 그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였다. 그의 삶에서 가장 큰 교훈을 남길 수 있는 말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이다.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고백한다.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죄인 중의 죄수"라고 고백한다. 이것이 참 신자의 삶의 고백이다. 그리스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신의 죄성을 더욱더 깊이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였다(롬 8:1). 우리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구원과 하나님 안에 확고하게 모은 객관적인 구원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이 분명하다. 믿는 자의 상태 곧 경험적인 진리와 믿는 자의 위치, 곧 자격의 진리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믿는 자의 상태는 늘 변하지만 그의 자격은 변하지 않는다.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For you know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at though He was rich, yet for your sake He became poor,
that you through His poverty might become rich.” (2 Corinthians 8:9)***

The Christmas message is truly wonderful. Jesus came down to this earth, the Son of God left his heavenly home, the Creator came to join His creation because His creatures were in serious trouble. He came to save sinners. His coming is such an amazing gift. We call it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ll four gospels define Christmas in a special way. The gospel of Matthew talks about Christ as King, the gospel of Luke looks at Him as the Son of Man (born in a manger), the gospel of John explains Him as God (Word became Flesh), and the gospel of Mark views Him as Servant. Paul takes a different theological approach to Christmas. His biblical explanation says, “For you know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at though He was rich, yet for your sake He became poor, so that you through His poverty might become rich” (2 Cor. 8:9).

Christ was rich. John 1:1-3 tells us,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H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All things came into being through Him, and apart from Him nothing came into being that has come into being.” Christ created the whole world, everything. You cannot even calculate such riches. He existed in the form of God (Phil. 2:6). How rich is that? 1 Timothy 6:16 says that Jesus “alone possesses immortality and dwells in unapproachable light, whom no man has seen or can see. To Him be honor and eternal dominion! Amen.” Can you even imagine that much affluence? Jesus Christ is unchangeable, “Every good thing given and every perfect gift is from above, coming down from the Father of lights, with whom there is no variation or shifting shadow” (Jam. 1:17). Jesus had everything, you name it and He had it. John heard every created thing saying to Jesus, “To Him who sits on the throne, and to the Lamb, be blessing and honor and glory and dominion forever and ever” (Rev. 5:13). Do you understand the extreme power and ultimate richness of Jesus? He left it all in heaven. The King of Kings, Lord of Lords, and Mighty God gave up everything to save you.

Christ became poor. His incarnation made Him become a humble human, flesh and blood. The most Holy of Holies took on the lowest of positions. He deserved praise and worship, but He received condemnation and detestation. He is the One the world should have loved, but instead they hated Him. Humans should

have welcomed and accepted Him, but they rejected and despised Him to the point of death. He was a perfect human being, without any sin, but He sacrificed His life for the sinner. The Jesus of Eternal Life experienced death. His treatment here on earth was horrific. Who could imagine the Son of God being born in a manger?

Christ became poor for us. The shepherds in the field on the night Christ was born received good news of great joy for all people, “for today in the city of David there has been born for you a Savior, who is Christ the Lord” (Lk. 2:11). The wise men saw His star in the east and came to worship Him. Jesus Christ came because He wanted to give us poor humans eternal life. He wanted to give us the most important gift from heaven. Ephesians 2:8&9 describes this wonderful gift,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at not of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not as a result of works, so that no one may boast.” The Bible clearly tells us that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fre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Rom. 6:23). Romans 5:5 also says, “and hope does not disappoint, because the love of God has been poured out within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who was given to us.” Eternal life, faith, and the Holy Spirit are the reasons why Christ became poor. Our salvation meant that much to Him. Romans 5:17&18 say, “For if by the transgression of the one, death reigned through the one, much more those who receive the abundance of grace and of the gift of righteousness will reign in life through the One, Jesus Christ. So then as through one transgression there resulted condemnation to all men, even so through one act of righteousness there resulted justification of life to all men.” In Jesus Christ we find peace. Jesus said, “In the world you have tribulation, but take courage; I have overcome the world” (Jn. 16:33). God gives us victory over death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1 Cor. 15:57).

My dear friend, the richest Lord became the poorest Lord so that He could make you exactly rich like Him. Please do not delay in coming to Him. The Christmas message is good news. It is the richest message you can receive. Please hear it and accept it in your heart of hearts, so that you can become rich like Jesus. God's grace is an amazing gift of salvation that gives you faith, peace, eternal life, the Holy Spirit, and victory over all things. 卐

다음 주일 설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8:9)



김성관 목사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하늘의 집을 떠나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창조주께서 몸소 그의 피조물과 함께 거하시려고 말입니다. 이것은 곤경에 처해 있는 당신의 피조물들을 도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의 오심은 정말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신약의 4복음서는 크리스마스를 각각 특별한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은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누가복음은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합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인 그리스도(말씀이 육신이 되신)를,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크리스마스에 대해 신학적으로 다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고후 8:9).

부요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부요하신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1-3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부요하심은 우리의 지혜로 가히 짐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제2:6).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6:16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찌라 아멘”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우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그 풍성하심이 어떠한지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불변하십니다. “각각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약 1:17).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 세토록 돌릴찌라”(제 5:13). 여러분은 예수님의 권세와 부요하심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께서 하늘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가난해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가난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분이 혈과 육을 지닌 연약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가가 볼 수 없는 거룩함에 속하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께서 비난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세상은 마땅히 그분을 사랑해야 했지

만 오히려 미워했습니다. 당연히 그분을 환영하고 영접했어야 했던 사람들은 그분을 멸시하고 배척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주님은 완전한 인간이었고 전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영생 자체가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받은 대접은 참으로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 구유에서 태어나리라고 누가 감히 생각했겠습니까?

구원을 위한 큰 은혜

그리스도께서 가난해지신 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밤, 들에서 양을 돌보던 목자들은 온 세상에 임한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눅 2:11). 동방에서 박사들이 주님의 별을 보고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천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가장 귀한 선물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8-9은 이 놀라운 선물에 대해 설명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죄의 삯은 사망이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롬 6:23). 또한 로마서 5:5은 말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 바로 우리에게 영생과 믿음, 성령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가난해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주님께는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로마서 5:17-18은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으니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라도” 그만큼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고전 15:57).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이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지체하지 마십시오.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복음이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부요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것은 믿음과 평안, 영생과 성령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

그리스도인의 가정 (골 3:18-21)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유포에서 말하는 '효'가 아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포의 가르침이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에 기초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 골로새서 3장은 그리스도인을 향해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윤행것을 찾으라..."(골 3:1).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골 3:8,9).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골 3:10).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골 3:11)이다. 그리스도인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정은 어떠한가? 바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 마냥 열심히 살고만 있지 않은가? 보혈의 은혜로 살았고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가 자신의 전부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가 살아 있어야 한다(골 3:15, 17).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이 모습을 출발점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시작된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히 나리

이 말씀을 단순히 유포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현실이 아닌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 아내들은 집안에서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면 안 된다(고전 7:10). 대신에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엢 5:22). 아내는 남편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남편이다. 왜냐하면 남편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한 몸이 된 것은 기적이다. 따라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남편에 대해 섭섭할 때도 있었지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충성되게 남편을 섬겨야 한다(딤후 3:11). 충성의 본질은 희생과 사랑이다. 따라서 내가 주는 것만큼 받으려고 하지 말라. 주는 것 자체로 기뻐해야 한다. 특별히 요즘 젊은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만을 많이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한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은 말한다.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딤후 2:4). 보혈의 은혜로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아내가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벧전 3:1).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며 과묵해 하지 말라

남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 가부장적인 권위를 아내를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죄인의 권위를 가정을 다스려야 한다.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시같이"(엢 5:25)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 주셨다. 남편은 이 복음을 깨달아야 한다. 더 이상 유포적인 권위를 내세우며 가정에서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 아내가 나보다 못하더라도 그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한다. 남편이 이렇게 행할 때 아내의 기도에도 막힘이 없다(벧전 3:7). 남편은 이기적인 사랑을 버리고 주를 사랑해야 한다. 심지어 부모보다 아내에게 더 잘해야 한다(창 2:24). 십자가를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진실로 아내를 사랑하라. "네 생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잠 5:18).

자녀들이 모든 일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막 7:10). 그러나 이 말씀을 유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큰 오류에 빠지게 된다. 부모를 섬기는 전제가 있다. 그것은 "주 안에서"(엢 6:1)이다. 윤리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유포의 가르침일 뿐이다. 따라서 주 안에서 부모를 섬기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다(창 1:8, 10:1). 세상 모든 부귀 영화를 버렸던 솔로몬은 모든 것의 허무함을 말하며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가르친다(전 12:1). 범죄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 윤리 안에서가 아닌 주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아버지들이 너희 자녀를 격조게 말라

자녀들이 부모인 자신을 잘 섬길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또 아버지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엢 6:4).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 이처럼 말씀이 살아 있는 가정에는 기쁨이 넘친다(빌 4:4,7,11).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은총의 사람이다. 우리가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오직 윤행것을 구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서로 사랑받기만을 요구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 주신 것처럼 서로에게 충성해야 한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서로 낮아지고 겸손할 때 그리스도의 은총은 넘치게 된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일에 감사를 수 있다. 범죄에 감사하라! 그리스도만을 경외하! 여기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자.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은총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가정이 되자. "사철에 불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고마와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찬 305장).

찬송이 저절로 나왔다!

종소기예에 몸 담고 있는 화사원으로서, 10여 일의 휴가를 받아 선교지에게 가는 것은 꿈만 같았다. 그러나 선교에 대한 주님의 소망은 복음에 빛난 자인 나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불타고 있었다. 마음에 작정하고 간절히 기도하니 그 다음부터는 선교갈 수 있도록 모든 일이 착착 진행되었다.

공항에서 사역자로 이동하는 도중에 전도하기 위해 한 마을에 잠시 멈췄다. 3명씩 한 조가 되어 집집마다 찾아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에서 한 남자가 내리기에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지를 주었다. "혹시 경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지나갔다. 그는 정말 경찰이었고 결국 우리들은 경찰서로 가야만 했다. 우리를 태워준 버스 기사는 수갑을 차는 몸짓을 하면서 별별 말도 있었다. 통역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우리는 길에 앉아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조금 후에 자동차 한 대에서 한국인이 내려 우리 쪽으로 왔다. 이 지역에 사는 선교사인대 한국인들이 있기에 지나가다가 잠시 멈췄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먼저 감사가 나왔다. 그 차 안에는 헌지의 목사님이 타고 있어서 경찰서에 직접 가시더니 나머지 일들을 간단히 처리하여 주셨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신 주님을 찬양했다. 이 일로 우리 팀은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후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경찰을 만났지만 주께서 함께하신다는 믿음이 우리를 당당하게 하였다. "부름받아 나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송이 저절로 나왔다.

이항진집사, 청년(2부)

하늘에 소망을 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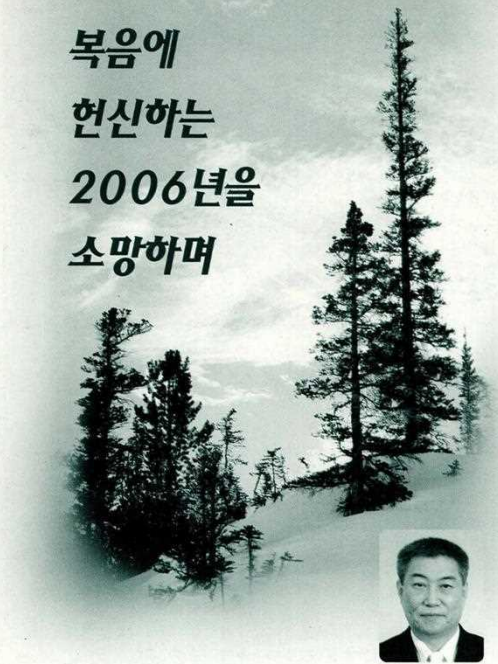
말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 때문에 이전보다 더욱 쇠약해진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의심도 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위로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선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선교 첫날, 우리가 간 곳은 베드로의 어장을 방문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다 '믿겠노라'고 영접하니 우리들은 기쁨의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곳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공원에서 만난 한 어린이는 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작은 복음의 잔치를 열리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집에 와서 '우상을 제거해 달라'는 요청에 가정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길에서 전도했던 한 대학생의 통역으로 복음을 전할 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미 이곳에 와서 준비를 마친 주님의 손길을 분명히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선교지에서 만난 영혼들을 매일 떠올리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처럼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헌지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미려하나마 선교의 애로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진실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약함과 세상이 주는 슬픔에서 벗어나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생애 다하는 날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하겠습니다. 아멘."



박태순 (권사, 3교구)

복음에 헌신하는 2006년을 소망하며



노 광 현 (장로, 담화서기)

2006년도에는 충현교회가 무엇을 목표로 하며 그것은 어떻게 실행, 실천해 나갈 것인가? 우리 교회는 위임목사님의 변치 않는 십자가 복음의 길, 즉 이 큰 목표를 확실히 있는 한, 이 복음의 길을 어떻게 하면 온 성도들이 잘 지키고 실천해 나갈 것인가에 모든 교회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의 열쇠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마 16:24,25).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 모두가 힘 써야 할 교회의 핵심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5대 목표를 통해 십자가를 전하자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5대 목표를 실천하는데 전 성도는 더욱 힘을 모아야 합니다. 또한 5대 목표를 통해서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타나고 진화되며 이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2006년도의 충현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 일부 성도들은 주일 예배, 십일조, 자원봉사, 금요일회 참여를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아마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은 더욱 찢어지는 듯이 아플 것입니다. 이것은 보혈의 은총을 입은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자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며, 이것은 완전히 그릇된 신앙 관행입니다.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천국일꾼이 되어서 민족복음화, 세계선교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참신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체면이나 단순히 교회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5대 목표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십자가를 전하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께 내가 하들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소나”(눅 15:18). 우리는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와 같은 죄인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

회를 주셨습니다. 회개입니다. 탕자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음지라도 모든 것을 회개하며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쁨으로 그를 안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아 니 이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떠한지 말씀에 순종하는 죄인을 통해서 주님은 일을 하십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령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령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령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요 5:30).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날마다 회개하며 순종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총을 잊지 말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말씀에 대해서 매우 이기적입니다. 자신의 편대로 말씀을 해석하여 적용합니다. 특별히 오랜 우리 조상들의 유교적인 습관대로 생각하고 꼭책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 대하여 부끄럽고 죄송하고 한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도 이러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김성근 위임목사님을 세워 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골 1:20). 지난 8년 동안 위임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이제서야 겨우 좁쌀만 한 참 신앙의 눈을 뜬 것 같아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겸손히 순종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서도 교만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야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총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자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밤, 낮으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벧전 4:7). 근신하여 기도하되 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조금 안아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마 26:39). 영아부부터 소망부에 속하여 있는 22개 교회학교 교사들은 복음에 굳게 서서 영혼들에게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모든 찬양대원들과 오케스트라 대원들도 복음에 확실히 서서 은총의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일꾼들은 주님께서 맡겨 주신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절실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더 나 할 것 없이 지금 이 시간부터 기도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살 길임을 잊지 말고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복음에 헌신하는 2006년을 소망하자

2006년은 오직 복음에 헌신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외식적인 모습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이 우리 모두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24-30을 보면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 함께 있다고 합니다. 가라지와 같은 사람은 10년 20년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마태복음 25:31-46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복음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가라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복음에 충실한 알곡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알곡으로서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며 교회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이 살아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복음에 헌신하는 2006년을 소망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 3:2).

주과 감사하러

나 예수님 좋아해요!

엄마 : 도환아! 도환아! 추수감사절이 무언지 아니?
 도환 : 아니 아니, 몰라.
 엄마 : 도환이 공 좋아하지? 그래서 두부도 잘 먹잖아.
 도환 : 응, 나 두부 좋아해. 맛있어.
 엄마 : 그럼 그 공은 누가 주셨을까?
 도환 : 엄마! 아니, 할머니가 해 주셨어.
 엄마 : 아니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다. 그렇지?
 도환 : 나 하나님 좋아해. 예수님도 좋아해.
 선생님께서 도환이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셨어.



조그마했던 아이가 어느 새 자라서 자기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고 말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이 시기에 세상 만물을 주신 주님께 진정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찬송이 아이의 마음 속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 감사하는 성도여 추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조기 전 얼려없이 겨울내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셔서 추수찬송 부르세 ♫
 김도환(유치부) 엄마 이정화

감사가 풍만한 아침

소풍날 아침, 엄마는 마음에 손도 온통 바쁘다. 하늘을 보니 다행히 맑은 날씨인 듯, 아침해가 상쾌히 뜨고 있다. 주님!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까지도 비가 왔었는데... 라디오에선 예정된 맑은 날씨만큼 청아한 아이들의 찬양이 들린다.

"예수 사랑 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어느 새 나도 모르게 아이처럼 따라 부르고 있었는가 싶었다.

대 등 뒤로 작은 아이의 낮익은 목소리가 들린다.

"나야 사랑하심! 나야-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주님! 이 아침, 이 아이의 입술로 찬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유난히 말이 더더 어리숙한 만큼 배로 기쁨을 채워 주느라 이지만 이렇게 예기치 못한 찬양으로 감사를 드릴 줄이야...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비 개인 하늘처럼 아이의 입과 심령을 어시고 찬양해 하사 우리 가정의 아침을 감사로 찬탄케 하셨습니다.

도지현(유아부)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전 하루에도 수도 없이 죄를 지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대로 이런 저를 버리지 않으셨고, 선택하셔서 교회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해요. 그리고 친구도 전도할 수 있게 도와 주신 것 감사해요. 그 친구가 교회에 잘 다니게 해 주신 것 또한 감사해요. 전 교회는 빠진 적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한 적도 거의 없어요. 이제는 더욱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주님의 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잘 성가대에 설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파서 수술을 해야 했는데 주님이 수술을 안 하고 낫게 해 주신 것 감사해요. 그리고 절 소년부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 주셔서 감사해요.

천현석(소년부)

늘 감사하면서 살고 싶어요

유치부를 마치고 유년부에 올라가 새로운 친구와 선생님을 만나니 참 좋아요. 저는 유년부 찬양대에 뽑혀 하나님과 주일에 먼저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엄마와 아빠는 제가 모든 것에 감사하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유진이가 되라고 기도해 주시는데, 제 맘대로 되지 않을 때는 가끔 화도 나고, 하나도 감사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생겨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찬양도 더욱 크게 부르며 되고, 기도 시간에 눈도 안 뜨고 기도를 잘 하게 되어요.

예전에는 죽게 되면 사랑하는 엄마 아빠와 헤어지는 것이 매우 슬펐어요. 하지만 지금은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식구가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즐겁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 드려요. 엄마는 제가 기도할 때 가장 예쁘다고 하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많이 드리고 찬양을 열심히 하면 제일 예쁘다고 칭찬해 주시겠죠? 저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어린이로 자라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유진(유년부)

사랑하는 예수님께

예수님 안녕하세요? 울 들어서 예수님께 감사드릴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번 여름에 다녀온 선교지에서의 일이 생각납니다. 조선족 마을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이야기예요. 그 할아버지께서는 아무런 희망도 꿈도 없이 살아가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할아버지는 자기 자신도 믿지 못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느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순간 화가 나 그러면 이 집은 어떻게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태평한 목소리로 삼관 없대시며, '예수님을 믿지 못 한다. 예수님을 믿지 못 한다.' 하시면서 서오허저를 쫓아내려 하셨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와 천국의 소망,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저 버린다는 것 자체를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저는 모태 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기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깊이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자에게는 큰 위로와 위안이 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하찮고 하찮은 존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되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도와 주세요, 그리고 살아 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윤(중등3부)

우리는 한 나무 한 가지

어제와 오늘을 다르게 느낄 수 있듯이 8년이라는 시간은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 기도원 사역을 하면서 기도하러 오시는 많은 성도님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높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비바람과 추위에 상관없이 기도에 힘쓰는 분도 계시고, 약한 몸을 지팡이에 의존하고 짧은 걸음을 재촉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한결같이 기도원을 찾는 성도님도 계시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도리어 제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분들처럼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남게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햇살이 새어나온 틈도 없이 백백하던 울창한 나무들이 이제는 속살을 드러내며 앙상해진 모습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미 물기를 잃어 예전의 모습은 오간 데 없이 오그라들이 떨어져 내리는 나뭇잎, 어느 새 시간과 바람 앞에 벌거벗은 은행나무, 그런 중에 또 신명하고 탐스럽게 변한 온갖 나뭇잎들을 보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풍요를 느낍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변화일 뿐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한 나무 한 가지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갖고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깊게 감사하기까지 많은 깨달음과 훈련이 있어야 했고, 기도와 결단이 있어야 했기에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소망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인데 일 년을, 아니 어제 하루를 되돌아볼 때 나 무엇을 감사하며 무엇을 위하러 힘썼는가를 생각하니 주님 앞에 부끄럽기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원하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얻었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좁은 나은 나를 발견했을 때 기쁨과 감사의 맘을 쉽게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사해야하는 이유가 이러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신 것만으로도 은혜인데 깨어 있지 않아 은혜를 모르고, 깨닫지 못해 감사를 잊고 지내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인지 만입니다. 이렇듯 때로는 나를 너무 창피하도록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알미울 때도 있었습니. 그러나 내가 성령의 인도보다 앞설 때 기쁨도 평안함도 감사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제자리에서도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드러내고 맡길 때 주님은 따뜻하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저마다의 모습이 다르듯 살아가는 모습 또한 다릅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감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집 안팎에 채워 본다면 감사가 늘어갑니다. 우리가 깨어 있는 삶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해 보는 내 자신이 즐거워집니다. 주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삶 속에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평안하기를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김선영(집사, 영아부 교사)

예수님 감사해요!



주신 자녀라고 하셨는데,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끔씩 엄마에게 저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고 여쭈어볼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엄마는 엄마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하세요. 부모님도 귀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의아들을 죽기까지 내어 주셨으니까요. 저는 친구를 위해 대신 야단맞기도 했는데 '예수님은 그 큰 고통을 어떻게 참으셨을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지 알 것 같아요. 저 혼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친구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어요. 저도 때로는 힘들거나 짜증날 때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 버리고 불평할 때가 있지만, 매일 하나님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는 말이 되게 하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여명인 (초등부)

내 영혼이 주를 찬양



찬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일곱 살 때 저는 잠시 부모님과 떨어져 시골 할머니 집에서 살았습니다. 잠시 머물렀던 그곳은 평생을 살면서 잊지 못할 기억을 간직할 곳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있어야 하던 그때의 어린 저에게 낯선 그곳은 늘 불안하고 떨리는 곳이었습니.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 당시 하나님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제 두 손을 잡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 그리고 그분이 제게 찬송가를 불러 달라고 했을 때 부른 곡이 364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집 같은 고생이나 내 평생 소원은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을 다 부르자 그 분은 저를 꼭 안아 주시고 하늘로 날아 올라가셨습니다.

이 꿈을 꾸 뒤로 저는 담대해졌습니다. 당시 시골에서는 집집이 제사가 많았습니다. 어린 그 때 도 전 제사 음식은 물론, 제사 음식일 것 같은 음식까지도 절대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또 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사물 외진 곳의 밤길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심부름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찬송이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의 길 되나니 은혜로다. 찬사 날 부르는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것은 순전히 비록 꿈 속이지만 하나님을 만났다는 믿음이 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내 고생 하는 것 옛 아픔이 돌베개 되고 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찬송하면서 더는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 후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어린 시절 부르던 찬송을 통해서 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아픔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정미란 (집사, 임마누엘 찬양대)

새 · 가 · 족 · 을 · 한 · 영 · 합 · 나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885	설옥녀	2	소망부	강영미(7)	2902	한만종	19	외선부	조영국(5)
2886	박 진	3	찬2부	강영미(7)	2903	황이주	19	외선부	김석영(7)
2887	이준기	3	찬2부		2904	이현호	16	외선부	임순희(10)
2888	박정규	14	찬1부	이화영(14)	2905	심영자	7	에바디부	박종철(7)
2889	조미자	19	찬1부	김한주(10)	2906	양승진	19	에바디부	박민기(1)
2890	김은미	8	찬2부	정민선(9)	2907	임유선	19	찬1부	권영환(15)
2891	김영섭	9	찬2부	차재규(10)	2908	정주혜	19	찬1부	박지연(19)
2892	이경진	9	찬2부	차재규(10)	2909	오근성	5	찬2부	
2893	도병희	1	찬2부	신동재(1)	2910	이은아	5	찬2부	
2894	김해순	16	에바디부	박민기(1)	2911	이권철	1	찬1부	김영섭(9)
2895	김순덕	9	찬3부	박민기(1)	2912	이석범	14	찬2부	이명철(15)
2896	황예식	13	에바디부	박민기(1)	2913	김소호	9	찬1부	최화재(10)
2897	한영수	10	에바디부	박민기(1)	2914	임선숙	9	찬1부	박희재(10)
2898	이정기	10	에바디부	박민기(1)	2915	송영선	4	찬2부	백종운(4)
2899	차지민	5	찬1부	이미주(4)	2916	신동현	19	대학부	이형배(19)
2900	하영고영	19	외선부	김석영(7)	2917	송혜진	19	대학부	김예슬(14)
2901	비비넷후	19	외선부	조영국(5)					

※ 찬송회의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5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이동태 12구	정현민 한정민 4.2구	박인기 한보근 11.2구	류병희 김정호 1.2구	김영훈 한민1 3.2구
여국근 4.2구	안창익 1.2구	나광영 11.2구	정진호 3.2구	김동태 3.2구
고장환 13.2구	권진광 사기초등학교 6.2구	김익환 14.2구	장 호 한신1 18.2구	임현태 7.2구
이희식 6.2구	최종철 18.2구	하종철 18.2구	이진원 18.2구	정경순 18.2구
안재홍 한동호 15.2구	이성진 2.2구	조규호 3.2구	최정규 18.2구	이재영 충남1 2.2구
이경준 대우1 9.2구	이창수 2.2구	김준희 3.2구	윤승민 18.2구	황진성 충남1 2.2구
정성영 9.2구	이정호 충남1 2.2구	김태석 충남1 2.2구	김성훈 고성1 2.2구	

■ **여권도사**

신도자 1.2구	유인숙 10.2구	한영조 18.2구	김연식 1.2구	홍순애 18.2구
이옥주 5.2구	김갑자 5.2구	안태순 18.2구	김영선 9.2구	조옥자 9.2구
강덕림 14.2구	복문식 7.2구	전은희 18.2구	김영순 17.2구	한성임 13.2구
이수경 사기초등학교 4.2구	김경희 15.2구	이복순 18.2구	류진희 9.2구	한성임 13.2구
	임태주 2.2구	옥미자 사기초등학교		

■ **천안양곡 강구급**

정원지(이하)	서윤성	김원철
정민도(창자)	김소연	정민일(창자)
		장연희